

Baptiste DEBOMBOURG (1978-) 밥티스트 데봄버그

France 프랑스



Born in Lyon, France Lives and works in Paris France 프랑스 리옹 출생 현, 프랑스 파리 거주 및 활동

뒤틀림

이 작품들이 예찬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부분적 파괴, 불완전한 복구, 회복학전 것이다. 이처럼 재구성된 작품들은 역성적인 측면을 넘어 시간, 역사, 기역 혹은 홍 에 대한 성공로 풀어된다. 작가는 이번 창원조각비엔날레에 환경위기에서 행정복 은 작품을 출품했다. 작품은 가려진 현실의 만났을 보여주기 위력 집이라는 광간에 대한 고리 관념을 비불고 인식의 구축 및 해체를 통해 시각적 경험을 전된시다.

DISTORTION

They are not a celebration of power, but rather of parlial destruction, incomplete restoration, and even resilience. Beand their, sometimes ironic aspect, these restructured artworks are to be interpreted as reflections on time, history, memories, or deaths. For the Changwon Biennale, the artist realizes a work inspired by the environmental crisis. The idea behind the work is a distorate perception of the space and the feeling of home, to shift our yeard experience by building and deconstructing our perception, in order to open our mind to see the hidden layers of reality.



독통, 200, MDF 나무, 확인도, 석고, 230 x 400cm Tempore, 2020, Wood mdf, Paint, Plaster, 230 x 400cm

240

프랑스 작가 밥티스트 데봄버그 (Baptiste DEBOMBOURG)의 (뒤틀림(Distortion)) (2020) 이 작품은 작가가 오래 전 시골에서 보았던 한 페가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에서 설 차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가주하지 않았던 공간은 관리가 되지 않은 책, 지고 과 종력 그리고 기후에 의해서 뒤들리고 점점 허물어집니다. 관전은 그 위탁로운은 간을 만든 이 '기용이전 건축적 조각'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내부의 모습을 관련할 있습니다. 허물한 작은 집은 처음에는 스랑과 수평으로 만났던 전화과 벽의 구조물 이 점차 허물어지는 과정을 통해 현재는 다른 각도로 만났던 전화과 벽의 구조물 선보입니다. 작가는 이러한 '뒤들린 실제 건축물'을 모델로 해서 만든 작품을 통해서 '공학적 지각으로 보이는 것'에 담긴 '실제'의 문제를 탐구합니다.

Distortion (2020) by Baptiste DEBOMBOURG from France This work is a faithful recreation of an old abandoned house DEBOMBOURG saw in a rural village a long time ago. A space that has long been uninhabited and unfouched becomes distorted over time and gradually collapses due to gravity and climate. Visitors are invited to enter and view the inside of this slanted architectural sculpture which captures that perilous moment The small, shabby house flatly reveals the state of being distorted in an angle after the initial perpendicularity between the ceiling and the wall is lost over time. Modeled on the actually distorted building, the installation a questions the reality that is perceived optically.





